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2월 23일(금)  
...(음력 12월 1일)...  
Пятница  
23 декабря 2022г.  
№ 49 (1201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 회의가 소집됐다. (이예식 기자 촬영)

## 2023년에 사할린과 쿠릴 주민 지원을 위한 모든 의무 전체 이행할 것

2023년과 계획기간인 2024년-2025년 사할린주 예산기획 2차 지역 예산심의 검토 결과 사할린주 알렉세이 벨릭 총재가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 주민 대표들은 주요 예산안을 지지했으며 사할린과 쿠릴의 예산으로 향후 3년을 살게 된다.

1주일 전에 조성된 1차 예산심의에서 범안 심의 후, 지역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알레리 리마레코 주지사는 '에지나야 로시야(통합 러시아)'당의 발의를 고려하여 2023년에 '작은 조국의 문화' 기획 예산을 3천만 루블리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금은 해당기관에 새로운 장비와 악기와 서적을 마련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 발전 프로그램의 재정도 7,540만 루블리로 증액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자금은 쉼부니노 마을, 고르노자보드스크, 스타로돕스코예 마을에 문화 기관의 수리 및 체호브 국제 극장센터와 '섬 사할린'체호브 책 박물관의 현재 유지 보수를 위해 책정되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예산 개정안을 지지하며 향후 3년간 지역 주요 예

산안을 채택했다. 2023년 예산 소득은 약1,328억 루블리로 계획됐다.

예산은 2022년 원래 예산보다 더 만족스럽게 배정됐다. 재정이 확보되어 주민 지원의 모든 의무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선 순위는 항상 지역 주민과 주민의 복지이다. 지출의 주요 항목들은 예산과 같이 사회적 방면들로서 우리는 보건, 문화, 교육, 스포츠, 기타 경제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적 사업은 노후주택으로부터 주민들의 좀더 발전된 이주를 위해 내년에는 우리가 10만㎡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알렉세이 벨릭 주 정부 총재가 언급했다. 주두마 의원들은 회의에서 제시된 예산안 효용에 찬성을 표했다.

"2023년에 우리는 지난해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서 시작한다. 예산은 원래보다 60억 루블리가 초과됐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내년엔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할 거라 믿는다." 라고 유리 비골로브 의원이 강조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안은 202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 회장 후보 3명 중 사할린주 한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오진하 고문 선출

지난 1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결산 및 선거 대표자 회의가 소집됐다. 자격이 있는 대표 40명이 선정된 가운데 이번 회의에 40명 모두가 참석한다고 대표자 회의의 조직 준비위원회를 대표한 김 타치어나 주여성회 회장이 밝혔다.

회의 의장으로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회장이 선출되어 회의 의정에 7가지 의제가 올랐다고 알려졌다. 1. 주 한인협회의 2019년12월-2022년12월까지 사업 결과 보고, 2. 결산기간 감사위원회 보고, 3.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선거, 4. 사할린주 한인협회 부회장 승인, 5. 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거, 6. 동회 감사위원 선거, 7. 기타 문제였다.

회의 의정에 들어가기 전

에 위임위원회와 투표집계위원회가 선정되었다. 이날 보고 및 문제, 토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를 회의 의장이 엄격히 지키려고 했다.

2019년 12월-2022년 12월 간 사업을 보고한 박순옥 회장은 10분에 걸쳐 주 한인협회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시간상으로 마무리도 못했다.

보고를 시작한 박순옥 회장은 2019년에 회장으로 선출될 때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 사할린한인 특별법 추진, 한국어 및 한국문화 유지·보급, 모든 사회단체 단합에 중점을 두는 것을 비롯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할린주한인협회를 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목적 중 하나로 본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 단신

### 사할린의 소피아 나디르쉬나, 러·중 동계스포츠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 획득

12월 14일(수) - 20일(화)까지 제3회 러시아-중국 청소년 동계스포츠 대회가 중국 창춘의 지린성에서 열려 러시아 대표단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 중에는 사할린의 스포츠 훈련센터의 스노보드 종목의 소피아 나디르쉬나 선수가 포함됐다. 그녀는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각각 획득하여 두 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 안수학, 박 이고리 사범에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명예 회장 수여

지난 12월 7일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집행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2028년도까지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전략을 확정했다.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은 2023년-2026년 기간에 <올림픽의 나라> 대중 스포츠 발전 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의 '러시아 올림픽 활동 발전의 공로' 명예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총 10명의 수여자 중 3명은 사할린의 스포츠 사범들로서 태권도 사범 안수학(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오스트로브>무술센터 관장), 삼보 사범 박 이고리(홉스크 스포츠학교 사범), 보리스 웨트만(아니아. 2호 체육학교의 체육교사)가 포함됐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들, 12월 21일부터 원격 학습 진행

12월21일(수)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생들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이 결정이 불안한 역학 상황과 관련하여 결정됐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해당 조치는 12월 24일(토)까지 연장되고, 유치원은 평상시대로 운영된다.

앞서 소비자보호감독청에서는 최근 지난 주간 러시아에서 호흡기 질환 및 독감 발병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평균 발병률 자료에 따르면 37개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 '아에로플로트',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행 항공편 추가

12월 20일(화) 아에로플로트 항공사가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행 승객 항공편을 증편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항공편은 12월 25일(일), 28일(수), 29일(목), 30일(금), 2023년 1월 7일(토)과 8일(일)에 운항한다.

이는 노선의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항공편이 증편되었다.

출발지는 모스크바 쉼레테티예보 공항이며, SU-1792 항공편이 12시 35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항공편은 SU-1793편으로 15시에 출발한다.

새고려신문

## 2023년 상반기 신문 구독 마무리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곧 마무리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국제 이주민의 날을 맞아

12월18일(일)은 국제 이주민의 날로 기념한다. 러시아는 이주민의 유입이 높은 국가로 간주된다. 동시에 이런 이주민 추이의 집계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이며 이동하는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다. 사할린 통계청은 사할린주의 이주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다.

2021년에 사할린주에는 이주민 1만7500명이 유입됐고, 이들 중 34%가 국제 이주민으로서 그중 87.2%가 CIS국가들로부터 이주했다. 그외 다른 나라들로부터 12.8%이주. 반대로 사할린을 떠난 주민은 1만6,800명으로 이 중 11.7%가 국제 이주민이고, 그중 CIS에서 온 이주민은 88.4%이며 기타 해외에서 온 이주민이 11.6%이다.

사할린과 쿠릴로 들어온 이주민 수가 많은 3개 국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이 3천200명, 타지키스탄이 500명, 아르메니아가 500명이다. 14세 그 이상 연령의 국제 이주민의 거주 등록신청의 주요 조건은 노동이 85.9%, 개인적, 가족관계로 9.2%, 학업 목적이 0.3%로 나타났다. 사할린주에 체류하는 규모로는 남자가 56.6%, 여자가 43.4%인 것이 눈에 띈다.

국제 이주민의 체류자 중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 그룹들로서 10.5%가 고학력의 전문가들이며, 14.4%가 서비스, 상업, 주민 및 재산 보안 분야의 근로자이고, 9.5%가 산업 및 건설업, 교통 및 관련 직종의 자격을 지닌 종사자이며, 49.6%는 자격증이 없는 단순 노동자이다.

외국인의 교육수준 정도는 8%가 중등 전문교육을 받았고, 40.2%가 일반 중등교육을 마쳤으며, 고등 전문교육 이수자는 13.2%이다. 사할린 지역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2명의 준박사가 있었다. 14세 이상 연령의 이주민 혼인관계는 기혼자가 50.8%, 혼인관계를 밝히지 않은 자 30.3%, 미혼 17%, 이혼자 1.4%, 이혼녀가 0.4%였다.

2022년 10개월간 예비자료에 따르면 사할린과 쿠릴에 체류한 이주민은 1만4,700명(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5,200명)이고, 사할린과 쿠릴을 떠난 사람은 1만8,600명(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6,700명)이다. 따라서 이주민 감소는 3,900명이다.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크라스노다르,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경, 아무르주로 나타났다.

CIS 국가에서 사할린주로 이주한 사람은 4,600명이고, 다른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이 300명이며, 반면 떠난 사람은 CIS 국가에서 온 주민이 6,300명,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이 1천 명이다. 국제 이주민 감소는 CIS국가들의 1,700명을 포함해 총 2,300명에 달한다.

(사할린주 통계청)

# 다시 가족 이산되는 영주귀국 자녀보다 부모 효도 우선

지난 주에 학교 동창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배로 타고 다녀온 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다녀왔는지 궁금해 했다. 1937년생인 그의 어머니가 인천에 계시는데 외동아들인 동창생이 이번에 영주귀국 대상으로 뽑혔다는 것이다. 올해 영주귀국 기간은 10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다. 올 12월, 내년 초 그랬었는데 현재 영주귀국 날짜에 누구도 확답을 주지 못한다. 동창생이 말하길 얼마 전에 "다리가 너무 아파. 너만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란 연락을 어머니에게서 받고 서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동해행 연락선은 만석이었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는데 다행히 기적처럼 빈자리 하나 생겨 다음 주에 가게 되었다. 동창은 엄마 걱정으로 가득하다.

사실 그렇다. 처음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는 직항 비행기가 뜨지 않아 한국에 영주귀국하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물론 그들 자녀 다수가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서로 버티며 그리워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모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제 3 국을 통해서라도 부모를 찾아가고 있다.

임 나탈리아는 이미 2019년부터 계속 안산 고향마을에 어머니 댁에서 살고 있다. 2021년에 시행된 사할린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대상으로 선정돼 공식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가 2019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유는 어머니 건강상태 때문이다. 보살핌이 필요했다. 귀국한 어르신 대다수가 사할린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한다. 나탈리아의 어머니도 그렇다. 몇년 전에 딸과 아들의 설득으로 사할린에 살아 보기로 했는데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겨 한국 생활을 택했다. 연세가 많아 지다 보니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나탈리아 어머니는 거의 회복했는데 어느 날 넘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 요즘도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는 나탈리아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역시 병원에서 지낸다. "제 딸이 한국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다지 외롭지 않아요. 다만 아직 장가 안 간 아들을 사할린에 혼자 두는 게 좀 그래요."라고 나탈리아가 말하였다.

영주귀국할 때 큰 문제는 서류다.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 1959년생인 박 소피아도 작년 영주귀국 지원 대상으로 뽑혀 남편과 함께 작년 12월에 귀국했다. 처음엔 어머니를 큰 오빠가 모셔야 한다 했다고 한다. 먼저 어머니 집에 와 있는 오빠는 이미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봄에 어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입원했다. 얼마 안 돼 오빠도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소피아는 한국으로 떠났다. 수술을 받은 어머니

는 퇴원을 해야 했는데 휠체어 타는 환자를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서 어머니는 잠시 의료시설로 가게 되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본 소피아는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의료기관 측에서 반대를 했다. 그래도 소피아는 결국 집에 모시고 가 어머니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의료기관에서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기 때문에 수면제를 주었는데 이것이 몸에 해롭다는 판단을 한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안 주고 거의 2개월 동안 집을 찾아온 보호자와 돌봄이와 함께 어떻게 셋이 노력한 덕분에 얼마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소피아는 그 동안 어머니와 함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큰 욕창을 앓아도록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어머니를 계속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가족 회의에서 소피아가 영주귀국을 해야 하는 걸로 결정했다. 다행히 그의 남편이 그를 응원해 장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문제는 한국 서류상 소피아는 어머니 딸로 인정되지 않고 동거로 적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 2022년 12월 16호 3면 청원서 게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소피아는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딸은 아이가 셋인데, 8살, 6살, 막내는 1.5살입니다. 딸이 육아하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제가 옆에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할머니인데... 아들은 아직 장가 안 갔구요... 할 수 없지요. 지금 어머니가 우선이지

요. 그런데 참, 이런 영주귀국이 다시 가족을 이산시키네요."라고 박 소피아가 털어놓았다.

안산에서 만난 최 이리나는 올해 영주귀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건강상태가 안 좋은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거의 한국에 있다. 보통 혼자 와 있었는데 영주귀국 신청지원 후는 남편과 함께 왔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다. 곧 퇴원할 것이다. 어머니는 병원 음식을 못 드신다. 그래서 3기 차리려고 딸 이리나는 애를 많이 쓴다. 그는 역시 박 소피아와 같은 생각이다. 자녀 걱정, 그리고 서류 문제다. 게다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영주귀국을 못 한 입장이라 어머니 집에서 어떤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언젠가 풀릴 수 있지만, 부모를 찾아 돌보고 있다가 연세가 많고 병이 깊으신 부모가 떠나게 되면 올해 귀국지원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아직 영주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바로 세워야 한다.

안산고향마을을 사할린동포회 주축한 회장에 따르면 현재 고향마을에 영주귀국 대상으로 뽑힌 사람 약 100여 명이 와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측에서도 잘 알고 있고 해결법을 찾는 중이다. 올 11월 말-12월 초에 한국을 다녀간 그 당시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이 문제를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시간은 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부모님도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안산-사할린) (배순신 기자)

# 이모저모

## 올림픽 곰돌이의 생일 사할린 곰 박물관에서 기념

제22회 하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미소짓는 선량한 곰돌이를 올림픽 마스코트로 결정한 날로부터 45년이 지났다. 곰돌이와의 고별식은 모스크바에서 경기 폐회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지금도 올림픽 곰돌이는 성인과 아동에게서 사랑받는 마스코트 중 하나다. 곰돌이의 생일을 맞아 사할린 곰 박물관이 상호작용 수업(6세 이상 대상)을 진행했다고 사할린주 문화부가 전했다.

참가자들은 곰돌이 모양의 펠트 장식품을 만들어보고, 그 역사를 알아보며, 1980년도 올림픽 폐막 영상을 시청했다. "이번 활동은 유익하며, 흥미로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곰돌이 장식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활동에 더 자주 참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조성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물관 직원인 웨로니카 막시모브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라빈카' 14호 유치원의 유가이 웨라 교사가 소감을 전했다.

인터랙티브 수업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лимпийского Мишки отметил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Музее медведя

45 лет прошло с того дня как оргкомитет XXII летней Олимпиады утвердил талисман игр — доброго, улыбочивого Мишку. Церемония прощания с ним стала самым трогательным моментом за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Москве. И сегодня Олимпийский Мишка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любимых персонажей и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По случаю ег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узей медведя провел интерактивное занятие (6+),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куль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сделали подвеску из фетра в виде Мишки, а такж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историей этого талисмана и посмотрели видео с закрыт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80 года.

— Занятие было интересным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м.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мы с ребятами смогли сами сделать такого милого медвежонка. Оказалось, это совсем несложно. Теперь мы постараемся чаще приходить на такие занятия. Спасибо огромное, что организовываете такие встречи.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хотелось бы выразить сотруднику музея Веронике Максимовне,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воспитатель детского сада №14 "Рябинка" Вера Югай.

Интерактивное занятие прошл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령층을 위한 새해 젊음의 축제 개최

12월17일(토) 새해를 앞두고 발랄한 창작곡 콘서트-오락 프로그램에 고령층의 대표자들을 초대했다. 이날 축제에 초대된 손님들은 명절의 분위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훈련도 받으며,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기도 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행사 담당자이며, '고령세대' 기획 담당자이자 예방의학 및 공공 보건센터의 의사인 엘레나 스톨라로와의 말에 따르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고령세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스포츠 활동을 위한 바람직한 여건 조성 및 문화·오락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규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금 여기에 다양한 사회기관의 회원들과 전쟁시기 아동

이었던 분들, 노인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언제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명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발전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신비로운 새해 분위기가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합니다." 라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당뇨병 환자 모임' 사회단체의 회원인 예브게니야 라자노와가 말했다.

고령세대 대표자들을 위해 창작 예술단과 시립 중창단이 신명나는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새해 이야기와 사랑 선물이 주어지는 노래의 상식에 대한 퀴즈대회는 행복했던 어릴 적 추억 속으로 관객들을 이끌어가는 추억의 순간이 되었다. 진료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 가운데 새해 축제의 참가자들은 안압 및 동맥류 혈압과 혈당 수치를 검사하고, 의사와 상담도 받을 수 있었다. 행사 마지막에 다과를 모두에게 접대하며 마무리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Новогодний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ости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17 декабря,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ригласили на концерт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6+) с яркими творческими номерами. Гости вечера смогли не только насладиться праздничной атмосферой, но и пройт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тренинг, а также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иници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главный врач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куратор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де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граждан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вовлечению в их в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8면에 계속)

### 주한인협회 결산선거회의

## 회장 후보 3명 중 사할린주 한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오진하 고문 선출

(1면의 계속)

2019년 선거 당시 협회에 대한 모든 비판을 고려하고 가능한 대로 협회의 활동을 개선하려고 그동안 노력했다.

첫째, 우리 협회에서 사할린한인 1세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영주 귀국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일본이 지원하는 1세대 영주귀국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2016년에 1세 사할린 잔류한인 45명과 사망한 1세 노인들의 자녀 35명(2세)은 한국 적십자사를 통해 방한할 때 한국 의료기관들에서 처음으로 의료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일시 모국방문을 한 1세 123명, 2세 87명은 2017-2019년에도 역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 재단을 통해 사할린 1세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종합 건강검진과 진료 사업을 추진했다. 주한인협회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이오 대한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1세 분들이 가족 보호자의 인솔하에 한국을 방문하여 검진과 치료를 받았다. 재단에서는 2019년 가을부터 사할린 잔류 1세들을 위한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제재로 인해 한국과 직항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모국방문, 역방문 등 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계속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매해 사할린의 5개 지방에서 실시하는데 올해는 사할린 전역으로 확장됐다.

또한 2022년에 한인센터 내에 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으로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사할린 건강생활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에서 1세대는 한 달에 두 번 전문의들의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건강관리 예방교육도 받으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일본 적십자사와의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이 마련한 주 한인문화센터 내 의료상담실(의약품 구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협정 기간은 이미 2015년으로 마감되었는데 해마다 이 협정을 연장하고 있다. 올해도 이 협정을 연장했으나 아직 일본 측에서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상담실이 지장 없이 운영되도록 주한인협회 측이 노력하고 있다.

몇년전에 사할린주 한인 이산가족협회에서 2세대 실태조사를 한 가운데 이에 3534명이 참가했다. 2021년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하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2세 문제 해결에 대한 청원서를 준비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대한 특별법 추진을 위해 여러 번 한국 국회의원과들과 국무총리를 만났고, 블라디보

스토크과 서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과로 드디어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물론 이 특별법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 2021년에 이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문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올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저는 대한적십자사,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과 만났고 그리고 물론 특별법 개정 관련하여 여러 만남을 가졌다. 여러 서류를 전달한 가운데 여기에 50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도 들어있었다. 신임회장이 이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박순옥 회장이 강조했다.

현재 1세대 지원 문제와 함께 2세대, 차세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 마지막 방문차 2세대 초청 진료에 대한 합의도 보았다.

한인 2세들을 위한 행사가 적은 편이라 <60+클럽>을 만들었다. 이 클럽의 활동은 처음부터 주한인여성회와 주노인회가 조직하였다.

현재 한인문화센터 소속으로 노년(연금자) 여성들로 구성된 2개 무용단, 한국노래 앙상블이 활동하고 있다.

그외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 쿼즈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와 함께 한국어 교사 준비에 주예산(사할린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따냈다.

또한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하늘>타악기 팀, 태권도축제 등 재능있는 청소년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못한 미니축구시합을 진행했다.

매년 두 가지 큰 행사 - 음력설맞이 행사와 광복절 행사다.

한인들은 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방한인회를 잊지 않고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샤희초르스크와 코르사코브에는 카라오케 장비, 마카로브와 샤희초르스크에는 악기를 전달했고, 모든 지방 1세 노인들에게 새고려신문 구독을 해드린다.

그리고 주내 거의 모든 구역들에 대중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한 가정에서>축제 기획은 주내 7개 도시에서 펼쳐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는 주정부 지원의 사회적 콩쿠르에서 9번 장려금을 따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2번, <엑손 리미테드>회사의 지원금은 3번 받았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텔레그램에는 <코레이스키 텔레그래프>채널이 열렸다.

2021년에는 사할린주가 주최한 전 러시아 청년포럼 <오스트로와>의 공식 파트너가 되어 포럼의 일환으로 <뻬세>청년행사를 주최했다. 반응이 좋아 2022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14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



림종환 후보 오진하 신임 회장 천영근 후보

로 선택되어 실시되었다.

주한인협회는 <볼샤야 페레메나(크게 쉬는 시간)>전국 콩쿠르 일환으로 여러 콩쿠르 수상자들을 위해 <한국 문화의 날>들을 진행했다. 이 기획으로 300여 명이 한인문화센터를 찾았다.

2017년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인 역사 상설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주한인협회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상설 전시 개설에 관한 문제를 계속 추진하는 중이라고 박순옥 회장이 보고를 마무리했다.

이후 재정 보고를 한 첸 인지아(전인자) 감사위원장은 결산기간 재정위반이 없었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며 주한인협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세히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한인협회 사업의 총결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8개 조항의 결정안을 채택했다.

회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였다.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은 2기만 할 수 있어 두 임기를 마친 박순옥 회장은 회장 후보로 나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남성 세 분이 회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중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한인회 천영근 회장이다.

각 후보는 10분 안에 자신과 선거 공약을 소개해야 했다.

림종환 후보는 주한인협회 설립 당시에 초대회장을 많이 도왔고, 함께 단체를 세우고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후 다른 회장들과는 직접적인 활동에서 벗어나서 재정적 지원만 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그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회장으로 추천한 박종철 씨가 영주귀국하여 책임지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했다. 작년부터 개인사정으로 거의 1년간 회장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회장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주한인협회 회의에서 '정관 위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를 다수가결로 단체회원에서 탈퇴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며 의견을 표명했다. 정관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지 궁금하다며, 회원 수로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는 사할린의 한인회 중 규모가 큰 단체 중 하나인데, 한인들이 토틀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림종환 회장은 2016년에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할 때도 선거 공약 일부를 변경없이 소개했다. 정관에 따라 주한인협회의 활동을 잘 공개하고, 이를 위해 여러 주민, 동포 계층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 주한인협회의 지도부가 지방한인회와 더 친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지방 한인회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주한인협회의 사업방향과 계획안 작성에 운영위의 모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 보장. 협회의 재정적 문제에 대한 공개 보고 보장. 협회의 소유물, 장비 및 시설을 모든 한인디아스포라가 잘 사용하도록 보장. 사할린주의 주 행정부 및 지방자치체, 주 및 시의회 등과 계속 협력. 정기적으로 협회 회원 유치와 단합을 위한 활동 진행. 민족 간 행사 참가, 사할린주의 여러 민족단체와 협력활동. 대한민국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계속 협력.

오진하 후보는 2011년부터 사할린주한인협회 고문으로 활약했다.

이력으로는 이르쿠츠크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기업·기관 고급 지도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케람지트 및 탄회벽돌생산기업에서 전문기술자로부터 지배인(공장장)으로 승진. 39세에 공장장이 되어 15여년 활약. 사할린 주두마 제4기 및 5기 의원으로 선출.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올레그 유가이 사할린 주두마 의원과 그의 협력으로 2007년에 사할린에 한국영사출장소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협회 회장을 선출하면서 오진하 고문은 그 동안 박순옥 회장이 추진하는 기획들을 박순옥 회장이 이끌 어왔던 팀과 함께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의 선거공약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공약 간략하게 소개:

· 사할린주한인협회는 강한 단체로 인정을 받았고, 현재는 한인회가 있는 지방에서 활동 수준을 높여야 함. · 회비 50%를 지방한인회를 위해 사용.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활동 계속 이어감. · 한국어, 한국문화, 한민족 전통 유지·보급, 한국어교사 양성, 한민족 언론 지원. 1세대를 위한 활동 계속. 2, 3세대, 차세대를 위한 사업(모국방문, 건강검진, 진료 등).

마지막으로 오진하 고문은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사할린과 한국 간 인도적 차원에서 항공 직항으로 유

즈노사할린스크-인천-유즈노사할린스크 편 전세기를 띄우는 것과 코르사코브-동해-코르사코브 연락선 출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오로라'항공사에서 이미 승락했다고 전했다.

천영근 후보는 올해 새로 창립한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회장이며, <아르세날 그룹>회장으로서 장기간 스포츠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자선활동을 15여 년간 해오고 있다. 주한인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것은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임원들의 뜻이라면 선거 공약의 일부 조항을 소개했다.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 촉진, 모든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행사 개최, 1세와 2세들을 위한 활동 촉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는 모든 한인들을 위한 곳이니 문화센터 접근 문제 해결, 최근에 갈등거리가 된 사할린 한인 추모관 관련 문제를 소송이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 우선적으로 모든 한인,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단합시키는 것에 노력(사할린 한인들의 이미지 위상), 이미 인기가 있는 축제(<<한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라면>>, <<김치>>등)는 계속 개최 등등.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천영근 회장은 "우리는 다 함께 일합니다. 제가 협회장 후보로 나선 것은 명예나 돈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단합하고, 한인들이 화목한 가정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였다.

이날 후보들은 많은 질문을 받았고 20분의 토론에는 사할린 주정부 사회 커뮤니케이션국 예고르 움노브 국장, 사할린 주두마 아르خم 크루글리크 의원, 네벨스크 대표 박 블라디미르, 코르사코브 시의회 이춘식 의원(태권도 사범) 등이 언급했다. 김홍지 주한인협회 고문은 모든 후보들에게 '부회장으로 누구를 할 것인가?'란 같은 질문을 하였다. 림종환 후보는 '젊은 피가 필요하다. 젊은 지방 회장 중 누구를 키워볼 수 있다.'라고 하였고 천영근 회장은 '유영희 비즈니스협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고 오진하 고문은 '박순옥 회장'이라고 했다.

협회장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력이 있는 40 투표 중, 하나는 무효가 되고, 림종환 후보 - 0 찬표, 오진하 후보 - 28 찬표, 천영근 후보 - 11 찬표다.

오진하 신임회장은 부회장으로 박순옥 전 회장을 택했고 회의는 다수가결로 이 선택을 승인했다. 신임회장은 감사위원회와 주한인협회의 운영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회의는 이 명단을 그대로 선정했다. 고문으로 김홍지 씨는 이 명단에서 빠지고 새 고문으로 임엘빌라 교수(전 주한인협회 부회장)가 올랐다. 그의 운영위원으로 지방한인회 회장과 단체회원 대표가 들어있다.

회의장을 떠나는 한 분은 "오늘 한인들을 단합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회장을 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실망을 표명했고, 또 다른 분은 오히려 "박순옥 회장이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분이 선출됐으니 더 효율적이지 않나?"고 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Бизнес-форум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12 декабря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Бизнес-форум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2022,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ает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клуб Кимчи, созданный пр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собрались ведущие бизнесмены –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иста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тая, а такж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форум был посвящен теме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нетворкинг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изменением торговых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разных стран.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реализации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Алексей Силкин. Он отметил вклад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в процесс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новых геополи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ответ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работающий на благо всех россиян и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ющий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как никогда важен дл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обратились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Бюн Чоль Хван,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внешним связям –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и связям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ячеслав Калгано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инновациям и торговл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Дмитрий Прожер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ая автономия» Дмитрий Пак и президент Кимчи Бизнес-клуба Юрий Ли.

Пресс-служб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Трудовая партия Севера намерена править 8 000 лет

Сеул, 18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Трудовая парт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а, что останется у власти еще «8 000 лет» после года «новаторских изменений».

Ког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встал у руля, он сделал относительно скромное зая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партия может оставаться у власти от 700 до 7 000 лет, но десятилетие спустя он, похоже, почувствовал смелость добавить еще одно тысячелетие.

Официальная газета Севера Rodong Sinmun сообщила в статье на первой полосе, что этот год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оваторскую веку», когда Ким «прояснил направление построения партии для новой эпохи», прокладывая путь к тому, чтобы «80-летнее лидерство партии продолжалось в течение 8 000 лет».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по-видимому, чувствует себя в более сильной позиции теперь, когд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способная нести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запущенна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има 8 января станет офици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отсюда и цифра 8.

##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стал советник О Тин Ха

17 декабр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ась отчетно-выбо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СК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аво голоса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о у 40 делегатов, все они с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Делегаты заслушали отче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Она акцентировала внимание на работе по 1-ому поколению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осуг, обеспечение лекарствами и т.д.), работе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и внесению поправок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ассказала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боте со 2-ым поколением,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сохранению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ддержке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помощи в подготовке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д. Был также заслушан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финансовых нарушений нет, документация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Делегаты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знали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ОСК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и приняли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РООСК.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было выдвинуто 3 кандидатуры: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Чон Ен Гон,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О Тин Ха, председа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Чон Ен Гон. Каждый представил свою предвыборную программу, Лим Ден Хван призвал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районных отделений,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широкое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авления,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выработке направлений и план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широко освещать де-



ятельность в соцсетях. Попросил принять в члены РОО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ую мест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по его словам, несправедливо была исключена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Советник О Тин Ха сообщил о намерении продолж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чатую командой Пак Сун Ок, состоялась презентация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 по Спец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сохранению кор. культуры,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СМИ, поддержке 1-го поколения, работе со 2, 3м и последующими поколениями.

Кандидат Чон Ен Гон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на консолидации и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йцев, мирное решение вопросов по мемориальному комплекс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родолжении работы по Спецзакону, а также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 всеми покол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гласил работать сообщца.

Результаты голосования: из 40 мандатов 1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й (испорчен), Лим Ден Хван – 0 голосов, О Тин Ха – 28 голосов, Чон Ен Гын – 11 голосов.

Вновь избр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О Тин Ха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предложил к утверждению кандидатуру Пак Сун Ок своим заместителем. Большинство голосов кандидатура была утверждена. Было также выбрано правление в составе 28 чел. Из нынешнего состава правления выбыл советник Ким Хон Ди, новым советником стала Лим Эльвира.

Помимо правомочных делегатов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ростые горожане.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 Девочка из бронзы против лжи

Недавно мне довелось пообщаться с известным скульпто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Ун Соном, известным по работе «Памятник мира женщинам утешения» или «Девочка Мира». Впервые он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 2011 году напротив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А сегодня его знают во всем мире. Скульптура — дань памяти женщинам Аз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е подверглись сексуальному насилию со стороны Япон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Женщины для утешения» — эвфемизм, вошедший в употребление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женщин, вынужденных быть сексуальными рабынями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Японии в оккупированных странах и территориях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ермин «женщины для утешения» является дословным переводом японского слова ианфу, которым называли таких женщин.

Автор памятника дал интервью для «РК».

Почему в качестве образа трагедии вы выбрали маленькую девочку?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двергшихся сексуальному насилию, было множеств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По нашим подсчетам, 70-80% от всего числа, обращенных в рабство. Однако это не то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едь все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находятся в архивах Японии.

Кто стал прообразом девочки?

Его не было. Мы с моим соавтором — супругой вдохновились фотографиями женщин той эпохи и создали это лиц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ейчас оно олицетворяет всех женщин той эпохи, попавших в сексуальное рабство. Памятник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по всему миру. Эта девочка стоит уже в более чем 80 местах, и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ю, но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Например, в Германии.

Вы сказали, что во время войны, права женщин ущемляю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чему?

Я не политик, а художник — не смогу высказать личное мнение: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е не должно происходить. Мир трати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денег на вооружение, хотя эти деньги могли бы пойти на решение, к примеру, проблем экологии.

Какие цели вы преследуете, распространяя ваши памятники по миру?

Я хочу, чтобы Япония публично признала свою вину. Чтобы хотя бы одна бабушка, пострадавшая от рук японских военных услышала извинения. И чтобы в самой Японии на уроках истории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А в японских музеях историю показывали такой, какой она была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все, чего я хочу добиться.

Думали, что ваша работа вызовет такой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Нет, у меня было только одно желание — чтобы имена женщин, попавших в рабство, были очищены от позора. Япония делает все возмож-



Ким Ун Сон

ное, чтобы эту трагедию все забыли, и расходует на это примерно 1 триллион вон в год. Но их действия имеют обратный эффект — наш проект стал известным в мире. Мы требуем извинений и полноценного признания вины Японией за совершенн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Артем Бажора, специаль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Korea Press Foundation и ОКФ (Фонд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Фото: Олег Х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Аппарат «Танури» выполнил первый манёвр вывода на орбиту Лу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еспилотный косм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Танури» успешно выполнил первый манёвр по закреплению на орбите Луны.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2:45 утра 17 декабря «Танури» перешёл со скорости 8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на 7.500 км в час. Первый манёвр - наиболее важный шаг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рбитальный аппарат был захвачен гравитацией Луны перед началом вращения. До 29 декабря аппарат выполнит ещё четыре манёвра по выходу на лунную орбиту. Второй манёвр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1 декабря. «Танури» был запущен 4 августа. В течение года он будет измерять магнитную силу, гамма-лучи и друг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лунной поверхности с помощью шести бортовых датчиков. В ноябре он дважды отправил тексты и изображения из космоса на Землю,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в испытания по передаче данных на большие расстояния.

## Пхеньян провёл «важное испытание»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спутник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важный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испытаний ракетно-пусковой установки по выводу на орбиту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 ссылкой на неназван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18 декабря на космодроме «Сохэ», расположенном в районе деревни Тончхан-ри уезда Чхольс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нан-Пукто,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оценка возможностей спутниковой фотографии, системы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и наземной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С космодрома запущено транспортное средство, несущее «испытательный образец спутника», под углом к высоте 500 километров. Подготовка к запуску первого военного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завершится к апрелю 2023 год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нём такж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результаты испытаний были немедленно доложены в Центральный военный комитет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публиковало фот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ов Сеула и Инчхона, которые,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сняты с испытательного спутника.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мягчения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этапного смягчения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в борьбе с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а 11 декабр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позж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ласти объявят о планах поэтапной отмен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и, исходя из того, чт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а замедляется.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ожидаемые сроки отмены и индикаторы для их определения. Однако нынешний рост числа инфекций оказывает давление на у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емящегося отменить обязате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и. Это последнее из каранти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действовавших в стране.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ов, знакомых с ситуацией,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ны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на рекомендуемое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оциальных 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Позднее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будут сня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скорректированные правила начнут применяться с третьей недели января, когда в РК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Ряд экспертов считают, что смягчать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январе слишком рано.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метом дискуссий является включение в список зон, свободных от масок,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МС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МС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по укреплению оперативной совместимости. Манёвры проходили в Центре специальны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МС США в Коронадо, штат Калифорния. По сообщению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СШ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18 декабря, двухнедельные учения, завершившиеся 9 декабря, обрабатывал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в том числе статическое и динамическое обращение с оружием, техника ближнего боя, уход за ранеными, планирование миссии и обмен опытом. Участники манёвров сформировали две противодействующие друг другу группы, которые отработали различные сценарии спецопераций.

## Пловец Хван Сон У – чемпион мира на 200 м вольным стилем

19-лет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портсмен Хван Сон У сохранил за собой титул чемпиона мира по плаванию на дистанции 200 метров вольным стилем среди мужчин, одновременно установив как азиатский рекорд, так и рекорд соревнований. 18 декабря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плаванию в Мельбурне он показал результат 1 минута 39,72 секунды, на 1,07 секунды опередив Давида Поповича из Румынии. Том Дин из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финишировал ещё на 0,07 секунды позднее, заняв третье место.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короткие дистанции проводятся в 25-метровом бассейне.

(RKI)

## Южнокорейским чиновникам приказали терпеть и мерзнуть

Резкое похолодание и рост цен на энергоресурсы заставили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нять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экономию расходов. Первыми "под раздачу" поп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сслужащие, которым в офисах запретили повышать температуру выше 17 градусов, разрешив при этом ходить в свитерах, кофтах, а не в строгих костюмах. Как отмечают местные СМИ, чиновники жалуются на холод в помещениях и некоторые стали переносить совещания в расположенные по соседству кофейни, где гораздо лучше топят.

О новых мерах сообщила местная газета "Чосон Ильбо", отметив, что инициатором и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 сторонником новых мер ст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Еще в октябре был принят и доведен до подчиненных "Указ о пяти мерах по экономии энергии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Согласно правилам, в 1019 офисах и зданиях центр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а также в иных госучреждениях и институтах запрещено внутреннюю температуру искусственно повышать выше уровня в 17 градусов тепла. Учитывая, что из вс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в стране на госструктуры приходится 2,2 процента, то инициаторы новых мер ожидают суще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и в связи с резко выросшими ценами н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которые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РК импортирует.

На это все не особо обращали внимание, пока с начала декабря в Южной Кореи не настали холода. Чиновники стали мерзнуть, но приносить личные обогреватели и прочие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также запрещено из соображений экономии электричеств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ан Док Су в ходе одного из совещаний специально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этой проблеме, сказав, что "может из-за холода есть какие-то неудобства, но это позволит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ить госрасходы на отопление".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этом разрешил чиновникам приходить в свитерах, теплых штанах и приносить одеяла на рабочие места.

Как отмечает "Чосон Ильбо", эти меры у госслужащих особого энтузиазма не вызвали. Многие жалуются на то, что из-за холода существенно упала эффектив-

ность работы. Кроме того, далеко не у всех реально получается ходить по офису в свитерах и теплых штанах. У мног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ИД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часто бывают официальные встречи, где приходится появляться в строгих костюмах, в которых сейчас уже весьма прохладн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чиновников стала идти на то, что проводят совещания 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по соседству с офисами кофейнях. В этих заведениях гораздо теплее, так как у них нет правила "не выше 17 градусов". Так что, как с иронией отмечает издание, сейчас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в кофейнях часто не найти свободного места - в них госслужащие проводят совещания, а заодно и греются - как за счет горячего кофе, так и благодаря нормально работающим батареям. В ряде учреждений стали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 закупать и раздавать служащим обогревающие элементы,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используют туристы и альпинист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сслужащие тихо ропщут, но пока терпят, иногда сравнивают свою ситуацию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 КНДР зимой еще холоднее, кроме того усугубляются проблемы с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так как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за счет ГЭС,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в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зимой из-за падения уровня воды. В итоге в КНДР зимой в помещениях также весьма прохладно.

Сложно сказать, чем это закончи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и, но судя по настро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настроено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меры, которые здесь уже назвали "отопительной диетой". Тот ж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почтенный возраст в 73 года, настроен ходить в свитере и терпеть.

Правда многие госслужащие указывают на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ситуации. Все эти меры коснулись только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Две другие ветви власти - 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и судебная - пока наслаждаются теплыми офисами, где эти меры не действуют. В парламенте, судах и связанных с ними структурах, сотрудники не мерзнут, что вызывает невольную зависть у служащи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Олег Кирьянов(Сеул, РК)

## В списке ЮНЕСКО 21 объект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Сеул, 17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Сеть добровольных агентств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ставила карту мира,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ен 21 объект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внесенный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На карту не успел попасть талчум,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драма с масками, который был добавлен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30 ноября.

Кар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роекта гражданской группы «New Naullu»,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поощрение около 150 миллионов поклонников Naullu или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расширить свой интерес к стране за пределы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согласно гражданской группе.

«В разгар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претензий Японии на суверенитет над островами Токт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присвоения Китаем кимчи и ханбока мы создали карту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чтоб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информировать мир об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и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 сказали активисты.

На карте представлены территория мира и Корейско-

го полуострова. 21 нематериальн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Кореи представлено с фотографиями и описаниями, а также показаны 35 нематери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наследий со всего мира и национальные флаги 195 стран.

Иллюстрации включаю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кимджанг (приготовление кимчи и совмест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онгак (музыка, танцы и ритуал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ркестра), ариранг (лирическ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и пансори (эпическое музыка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а также традиционное ремесло вырезания из бумаги, цзяньчжи, турецкое искусство медды, общественные рассказчики, иранская музыка, радиф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0 000 карт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анены среди школьных учителей по всему миру. Карту также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скачать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организации.

С 1999 года гражданская группа работала с волонтерами над созданием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ов экземпляров 105 разли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стории.

## New York Times: «Решение уйти» - один из лучших фильмов 2022 года

Ведущий кинокритик газеты New York Times Манола Даргис назвала кинолент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Решение уйти»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фильмов 2022 года. Фильм повествует о расследовании загадочного убийства мужчины, в котором подозревается супруга погибшего. Манола Даргис сравнила работу Пак Чхан Ука с фильмом Альфреда Хичкока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По её мнению, просмотр фильма доставляет головокружитель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Ранее Корейский комитет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номинировать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на прем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х искусств и наук «Оскар»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KBS World

## Пандемия как образ жизни поколения

Сеул, 17 дека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чти 55 процентов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что пандемия COVID-19 станет постоянным явлением, показал опрос.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Кореи, только 18,7 процен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были уверены, что пандемия COVID-19 когда-нибудь закончится. Опрос был проведен в марте 2022 года среди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18 лет и старше. Число респондентов не раскрывается.

Отчет также показал, что 61,9 процен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обеспокоены вспышкой новых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Что касается уровня возвращения людей к допандемической норме, 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июнь южнокорейцы в среднем дали 61,4 балла по 100-балльной шкале. Он резко вырос с примерно 50 пунктов, подсчитанных в февр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днако группа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с еже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в 2 миллиона вон (1529 долларов США) или меньше, ответила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лее низ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в 48,4 пункта в июне.

##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современное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КРДВ) подписала соглашение с компанией «Евразлес», которая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ременное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бъем привлеченных в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инвестиций превысит 13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получат работу 239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Заготовка леса в объеме около 80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в год будет вест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 применением колесной экологически-безопасной сортирочной технологи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мощности нового резидент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ПВ) разместит в селе Дачн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рт начал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едприятия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2022 года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нацелены на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его предприятия, где будут объединены не только лесозаготовка и глубокая деревообработка, но также сохранение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ли высокую экономическую активность регио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го работают как крупные застройщики, так и частники. Наш проект получил поддержку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оздании и развитии производств, нацеленных на выпуск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Считаю, вместе мы создадим высокоэффективное,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 вертикально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и возведению более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для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Евразлес» Александр Пешков.

Оно будет производить в год более 10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бруса и доски, а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ых клее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 плит OSB и CLT панелей. Отходы пойдут на изготовление древесно-полимерных композитов, древесного угля и пеллет. Здесь же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 и химико-термомеханическую массу, которая применяется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различных бумаг и картонов. Резидент СПВ также возьмет на себя охрану, защиту 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лесов.

Первый этап создания ле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комплекс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сследование лесосырьевой базы, подготовку проекта освоения лес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лес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агистральных лесовозных дорог, лесных складов. Затем появятся два участка нижескладских работ с пунктами приемки и отгрузки древесины, гаражами, ремонтными мастерскими и складами для запчастей и горюче-смазо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Будут приобретены линии сортировки круглого леса, сушильный комплекс и когенерационная установка, дорожно-строительная техника. Полный запуск предприятия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2026 года. Но к производству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нвестор приступит уже в 2024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где растут объемы возведения жилья, эта продукция пользуется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водятся около 5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год, более одного метра на человека. О таком показателе многие субъекты Федерации только мечтают. В то же время для нашег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жно развивать местную стройиндустрию, чтобы не завози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извне. Поэтому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на Сахалине круп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приоритетным. Он поможет развитию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на остров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ереселению в новы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квартир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живут аварийных зданиях,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апомним, в 2021 году на полях VI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КРД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исутствии министр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Алексея Чекункова подписали с компанией «Евразлес»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их мощностей глубокого цикла. Кроме того,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ключено в перечень приоритетных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лесов согласн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02.2018 №190.

— Создание столь масштабного проекта, крупнейшего и самого восточного в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по увеличению переработки древесины и повышению экспорт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нвестор получит преференции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налоговые, таможенные льготы,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и др., что позволит запус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улучшить экономику региона и созд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роизводство такого рода даёт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появления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строить экологичное жилье дл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а изменение СНиПов деревянного домостроения меняет подходы к многоэтаж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Николай Запрягаев, добавив, что для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резиденту СПВ будет оказано содействие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о данным КРДВ, сегодня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реализую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более 2,1 тыс. резидентов СПВ. В экономику макрорегиона уже вложено 326 млрд рублей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создано 38,9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запущено 377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резиденты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еализуют 48 проектов с общи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ртфелем в размере 29 млрд рублей, из них 17 проектов уже запущены, на но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работают 1914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Резидентам СПВ доступны значите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и преференции, среди которых — сниженные до 7,6%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нулевые налоги на имущество и прибыль первые 5 лет, применение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С 2022 года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тал привлекателен и для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Минимальный порог капвложений для получения статуса резидента СПВ снижен в 10 раз — с 5 млн до 500 тыс. рублей.

##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музейный форум пройдет на Сахалине в 2023 году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музей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успешный опыт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обсуд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Роман Дашк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музе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выставки «Круженштерн. Вокруг света» — совместной инициативы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а, приуроченной к 75-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ковый проект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региона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о просьб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уникальную выставку продлили до 24 февраля 2023 года.

— Пример выставки «Круженштерн. Вокруг света»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а к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Мы можем не только принимать коллек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музеев, но и в партнерстве с бизнесо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роекты на лучших площадках страны. Например, в рамках Дн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едших осенью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музее в Москве. Уверен,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музейный фору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танет отлич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экспертным опытом и даст новый толчок для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увелич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Фору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вырастет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Музеи в XXI веке»,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2013 года.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в пятый раз, и мы хотим провести его более широко.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это уже довольно серьез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ведущих музеев страны. Статус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ещё больше участников и экспертов, презентовать опыт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ев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и наладить новые контакты. Конечно, без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партнеров, организовать его на таком уровне было бы невозможно, — сообщила Евгения Фирсова.

Для ООО «Сахалинская Энергия» направление «Культур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иций.

— Роль культуры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миджа региона сложно переоценить, — сказал Роман Дашков. — Когда человек принимает решение о переходе на работу в другую компанию, он, в том числе, оценивает 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досуга. Логично, что мы объединяем усилия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и экспер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чтобы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сей страны. А такие проекты как «Круженштерн. Вокруг света», несут еще и важ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ую функцию, рассказывая посетителям об истинных патриотах Отечества, открывших для мира наш уникальный край.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Теперь женщинам не придется выезжа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услугой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Процедура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у ОМС. Вопрос развития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язи с желанием островитянок проходить процедуры недалеко от дома. Эта ситуация разрешилась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ейчас центр «Цветок жизни» готов принимать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на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этап.

Несколько сотен семейных пар,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е оплодотворение, ежегодно обращаются к специалистам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Обоим будущим родителям в таком случае нужно пройти комплекс исследований. Первый этап диагностик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жен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оказаний и исключения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пациенты направляются к специалисту по репродуктив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в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Здесь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й этап к ЭКО.

— До этого момента выбор был только среди медучрежден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Проведение этих процедур длительное, материально затратное — женщине

необходимо жить в другом городе, находиться при клиник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недель.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будущей маме непросто. Когда лечение проводится на месте, женщине легче, рядом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И финансовая сторона вопроса будет менее затратной, — рассказала заведующая отделением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ластн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Елена Тагае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родилось 70 малышей, зачатых с помощью ЭКО. По оценк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и цифр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одготовки пациенток к процедурам.

К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егионе полного цикла ЭКО специалисты приступили после овладения всеми методиками начального этапа.

— Центр «Цветок жизни» оснащен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следнего поколения. Штат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лностью укомплектован.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ся специалист — эмбриолог. Уже сейчас начали прием акушеры-гинекологи-репродуктологи, владеющие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диагностикой и различными схемами лечения от женского бесплодия, стимуляции овуляции и подготовки к ЭКО,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Цветок жизни» Альберт Тухатов.

Работа первого на Сахалине центра ЭКО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женской консультации и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Ежегодно в «Цветке жизни» готовы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200 процедур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Главное условие — наличие медицинских показаний, их определяет лечащий врач.

##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о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и устроить дет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личный прием пяти сем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пределил ряд мер,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людям в слож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Такие встречи с семьями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казавшими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одит еженедельно. Каждая истор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принимаются адресные решения, как повысить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ахалинцев.

Самым наболевшим вопросом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являетс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ка Татьяна воспитывает двоих детей. У женщины высшее юрид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на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мощью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 Я пыталась устроиться, но меня не берут, потому что дети маленькие, и я якобы я буду постоянно на больничном. Хотя у меня есть, с кем оставить детей. Потом пробовала устроиться в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вонила полтора месяца руководителю, после чего услышала: «Мне нравится ваша настойчивость, но мне сейчас некогда вам заниматься», — поделилась Татьяна.

— Руководителя бюджет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оторый не нашел времени поговорить, прошу привести ко мне. Хочу напомнить ему о культурном коде — о заботе, защите и уважении,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являть к людям. А вам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можем найти работу,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предложила устроиться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л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необходимы грамотные юристы. Мама двоих детей поблагодарила за помощь.

— Спасибо! И спасибо, что устроили младшего ребенка в ясельную группу. На днях позвонили, предложили место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ейчас еду получать путевку, — рас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Маме троих детей Людмиле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также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Центр занятости уже предложил ряд вакансий — офис-менеджер, администратор, делопроизводитель и другие. Когда женщина выберет подходящую работу, младшую дочку переведут в детский сад поблизости.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ка обратилась за помощью с догазификацией ее дома в СНТ «Солнечный». Областные и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помогут подготовить заявку на проведение газопровода до границ СНТ. После собственники смогу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затраты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омовладения к приему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оплива — до 152 тысяч рублей.

Еще одной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помогу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устройством на более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ую работу. Глава семьи — по профессии тракторист-бульдозерист, мама — портная. Сыну по просьбе родителей помогли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ое место в секции по футболу.

Также многодетная мам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и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й дом в Луговом нуждается в ремонте.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сообщил, что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 крышу и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провести работы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ремонт фасада.

На личном приеме у губернатора побывали еще две одинокие мамы двоих детей. У женщин не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этому им окажут содействие в обучении и дальнейшем устройстве на работу.

Отметим, благодар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работе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с начала года удалось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снизить количеств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семей, чей доход ниж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김해 장유 사할린동포 자서전 발표회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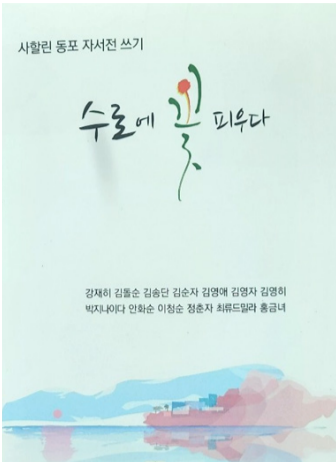
#### 홍태용 김해시장 "제2 고향인 김해서 아름다운 미래 만들어 가기를 기원드린다"

김해시 장유 읍면마을 사할린동포에서 14일 사할린 동포 자서전 발표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사할린동포들의 희노애락이 오롯이 담겨져 있어 의미가 매우 깊다.

자서전 쓰기 수업을 한 김경희 김해수로문화회 회장은 "사할린 동포 2~3세가 우리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었다"며 "수십년 동안 묻어둔 역사를 몇 편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자서전을 통해 다양한 역사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어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차소정 강사는 "처음 눈인사를 나누며 진행되는 수업은 밋밋하고 어색했다"면서 "수업 특성상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과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과 간격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되면서 질곡 같은 세월을 실타래처럼 풀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장유 사할린 동포들이 자서전 발표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조민규)

홍태용 김해시장은 축사에서 "민족의 애환이 함께하는 사할린 동포의 자서전 '수로에 꽃 피우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서전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김해시 거주 사할린 동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서전을 통해 굳은 의지와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했던 사할린 동포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제2의 고향인 김해시에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드린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 서구, 사할린 동포 어르신 모시고 국내 문화체험 나들이

【우리일보 -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 태화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난 15일 서구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어르신 19명을 모시고 국내 문화체험 나들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명동대성당 관광과 함께 남산에서 서울의 전경을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했다. 문화체험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달 영주귀국 10주년을 맞아 동포들과 뜻깊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애국심과 애郷심을 동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체험 및 국내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21명 어르신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병석 서구청장은 "서구에 정착하신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며 "영주귀국 주민 거주지가 집중된 지역의 생활 편의 등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 서구, 사할린 동포 어르신 모시고 국내 문화체험 나들이 © 서구청 제공

### 양산시 상북면적십자봉사회, 사할린 세대에 김장김치 전달



경남 양산시 상북면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에서 주관한 희망나눔 김장한마당을 통해 담근 김장김치를 사할린 동포들이 정착 중인 상북대석휴먼시아 36세대에 2일 전달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적십자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에서 주관한 희망나눔 김장한마당을 통해 담근 김장김치를 사할린 동포들이 정착 중인 상북대석휴먼시아 36세대에 2일 전달했다.

상북면적십자봉사회는 지난 5월에도 직접 담근 김치 150통과 멸치 등 밀반찬을 전했으며, 6월에는 생필품 꾸러미 100박스를 관내 취약계층에 기탁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철 사할린동포회장은 "매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며 "후원반은 김장김치 덕분에 겨울을 걱정 없이 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아파트신문)

###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화관람 행사 열어



▲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할린동포 노인들과 영화 관람행사를 열었다.

충북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노하·민간위원장 이건용)는 사할린동포 노인들과 영화관람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분과는 문화 테라피지원 사업의 하나로 분과위원 20여 명이 군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노인 20여 명과 식사하며 그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음성읍 설성시네마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이불세트도 지원했다.

이건용 위원장은 "음성군에 정착하신 영주귀국 동포들이 점차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동포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 음성군 사할린동포회장은 "이웃들의 사랑과 관심, 도움의 손길에 삶의 희망을 느낀다"며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음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 [우리말로 깨닫다]

###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말도 많습니다. 우리말에서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쓰는 말은 기쁘다와 즐겁다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늘 기쁘고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뻐하라는 말은 평범한 일에도 기뻐하라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늘 기쁜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기쁘다와 즐겁다의 의미 차이를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다른 질문과 달리 이 질문을 제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답을 안다는 점을 내세우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실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듯도 합니다. 아무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둘 다 좋은 감정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표현하는 말이라는 한데 어딘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 피면 범위를 달리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유의어는 많은 경우에 동의어와 차이 없이 쓰입니다. 정확한 용어로 보면 동의어는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완전히 같은 말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동의어라는 용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는 사실 모두 유의어인 셈입니다. 동의어 중에는 부분 동의라는 말도 있는데 유의어가 바로 부분 동의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어는 같은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고, 비슷한 말은 사실상 다른 말입니다. 따라서 유의어를 논할 때는 공통점 못지않게 차이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기쁘다와 즐겁다는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기쁘다와 즐겁다를 구별하는 가장 명확한 문장은 논어의 첫구절의 예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이편(學而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 기쁨 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봉 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訪來 不亦樂乎)'에 즐거움 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쁜 것은 배우는 것이고, 즐거운 것은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즉 기쁜 것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입니다. 배우는 것은 기쁨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 깨달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좋은 스승에게 배울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喜悅)은 기쁨의 뜻이 반복된 말입니다.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다.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속에서 익을 때 더 기쁜 것입니다.

즐겁다는 기본적으로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의 감정입니다. 논어에서는 붕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벗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한자를 좋아합니다. 월(月)은 여기에서 육(肉)을 의미합니다. 몸은 곧 나입니다. 내 몸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벗입니다. 벗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슷한 또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견고 싶은 사람은 모두 벗입니다. 그 사람이 멀리에 있었다면 무척 그리웠겠지요. 물론 만나지 않아도 늘 마음으로 함께하는 존재이지만 만나면 몸과 몸이 가까이 있기에 더 좋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감정을 관계와 사회성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두 감정이 섞입니다. 그래서 두 감정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서 생긴 감정은 즐거움이지만 그 때 내 속에도 기쁨이 넘치니 즐거움과 기쁨은 통합입니다. 나는 혼자 있으니 기쁜 감정일 테지만 마치 누구와 함께하는 느낌이라면 즐거움이 됩니다. 노래를 듣고, 책을 읽을 때도,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도 즐겁습니다.

기쁨이 곧 즐거움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기쁜 하루하루가 되고, 이왕이면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도 되기 바랍니다. 배우서 기쁘고, 함께하여서 즐겁다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 Сегодня здесь и члены раз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дети войны, серебряные волонтеры – больше 100 человек. Когда нас так вместе собирают – это всегда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Мы общаемся, развиваемся, прекрасно проводим время. И это очень ценно. Чудесная новогодняя атмосфера, так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 поделилась чле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щество больных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Евгения Рязанов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готовили яркую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выступлен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вокалистов города. Запоминающимся моментом, перенесшим гостей в счастлив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детства, стала викторина на знание новогодних сказок и песен со сладкими призами.

Параллельно работала медицинская площадка, где участники Новогоднего фестиваля могли проверить артериальное и внутриглазное давление, уровень сахара в крови,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рача.

В завершении праздника всех угостили ароматным чаем с пирогом.

## 무료 에코센터 12월 15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생명의 꽃' 새로운 에코(시험관 아기 시술)센터가 문을 열어 주민들을 위해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의료지원이 요청에 따라 이용돼 지난해에는 70명의 아이들이 탄생했다.

"사할린에 시험관 아기 시술센터가 열렸다. 이제 여성들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떠날 필요가 없다. 절차는 필수 의료보험에 따라 무료로 진행된다."고 전해졌다.

"예전에는 타지역의 의료기관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여성들은 다른 도시에 살면서 3주간 병원을 다녀야 하는 장기간의 절차과정과 물질적 소비를 하게 되었다.

정서적으로도 미래의 엄마에게는 쉽지가 않았다."고 사할린주 조산센터의 생식기술과의 엘레나 타가예와 부장이 말했다.

## 15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работал центр бесплатных Э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новый центр ЭКО «Цветок жизни», чтобы услуга стала доступнее для островитян. Так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пользуется спросом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вет появились 70 таких малышей.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экстракорпорального оплодотворения. Теперь женщинам не придется выезжат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услугой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Процедура проводи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у ОМС,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 До этого момента выбор был только среди медучреждений за пределами региона. Проведение этих процедур длительное, материально затратное – женщине необходимо жить в другом городе, находиться при клинике в течение трех недель.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будущей маме непросто, – цитируют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дующую отделением репродукт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ластного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Елену Тагаеву

## 러시아 통계청 새해 샐러드 가격 집계

러시아 통계청이 새해 가장 대중적인 샐러드 – 올리비에와 쉐지 포드 슈보이(절인 청어 겹샐러드) - 를 지난해 가격과 비교했다.

'로스스카야 가제타' 에 보도된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한 해 동안(2021년 11월부터 2022년11월까지) 올리비에에는 가격이 8.53% 올라 442.92루블리 - 480.69루블리에 달했다. 통계청이 제시한 레시피로는 삶은 콜바사, 절인 오이, 감자 각각 400g, 양파 100g, 당근 200g과 달걀 4개, 완두콩380g, 마요네즈 200g이다.

샐러드의 가격은 1년 만에 약 18% 가격이 오른 푸른 완두콩과 절인 오이의 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 마요네즈

의 가격은 14.41%, 삶은 콜바사는 7.83% 가격이 올랐다. 대신 달걀과 채소는 가격이 하락했다. 무엇보다 감자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3.26% 내렸다. 청어 겹샐러드는 5.25% 가격이 올라 지난해 212.92 루블리인데 비해 올해는 224.68 루블리로 올랐다.

이 샐러드의 레시피로는 절인 청어350g, 달걀 2개, 당근 200g, 감자400g, 양파100g, 비트300g, 마요네즈300g이다.

샐러드는 절인 청어가 18.39%, 마요네즈가 14.31% 가격이 상승해 비싸졌고, 그외 5개 재료들은 가격이 하락했다.

## Росстат подсчитал стоимость новогодних салатов

Росстат рассчитал стоимость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новогодних салатов – оливье и сельди под шубой – и сравнил цену с прошлогодней.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которые приводи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за год (с ноября 2021 года по ноябрь 2022 года) оливье подорожал на 8,53 % – с 442,92 рубля до 480,69 рубля.

За основу ведомство взяло рецепт: по 400 граммов вареной колбасы, маринованных огурцов, картофеля, 100 граммов лука, 200 граммов моркови, четыре куриных яйца, 380 граммов зеленого горошка, 200 граммов майонеза.

Стоимость салата поднялась по большей части из-за подорожания зеленого горошка и маринованных огурцов – цены на них поднялись почти на 18 % за год. Стоимость майонеза выросла на 14,41%, вареная колбаса стала дороже на 7,83 %. Зато подешевели куриные яйца и овощи. А больше всего упала цена на картофель – на 33,26 % за год.

Селедка под шубой подорожала на 5,52 % – в этом году салат стоит 224,68 рубля против 212,92 рубля год назад.

Рассчитывали данные по рецепту: 350 граммов сельди, два куриных яйца, 200 граммов моркови, 400 граммов картофеля, 100 граммов лука, 300 граммов свеклы, 300 граммов майонеза.

Салат подорожал из-за роста цен на сельдь на 18,39 % и майонез на 14,31 %. Остальные пять ингредиентов подешевел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йт (주필) 배 옥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